

5·18 가해자 계엄군경 국가유공자 지정도 기가 막힌데...

73명 중 56명 심의조차 없이 선정됐다

송갑석 의원 자료...영관급 4명 포함 30명 국립현충원 안장 "희생자 모독하고 역사 인식 오판"...보훈처 미온적 대처 지적

5·18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광주·전남 시·도민들을 참혹하게 진압한 계엄군경 가운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56명은 적절한 심의도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으며 현재까지 30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국가유공자로 함께 지정되고 국립묘지에 묻히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철저하고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왜곡된 상황을 바로잡기 보다는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역사적 진실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계엄군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65명이며 전몰(전투중 사망) 군인이 22명, 순직(업무중 사망) 군인 1명, 전상(전투중 부상) 군인 35명, 공상(공무수행중 부상) 군인 7명으로 집계됐다. 또 경찰은 순직 4명, 공상이 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1989년 이전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56명은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

시한 바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5·18 계엄군경은 모두 30명이며 이 가운데 영관급 군인이 4명, 위관급 군인이 1명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며 역사 인식에 대한 오판"이라며 "보훈처는 역사적 사실에 맞게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명령 체계에 의한 일부 계엄군의 억울한 죽음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미 97년 대법원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일지라도 명령에 따른 경우,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며 "국가보훈처가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등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5·18 계엄군들에 대해 전상, 전몰 등으로 명시해 80년 5·18 당시 항쟁에 나선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한 당시의 만행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국가보훈처에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취소 계획을 물었으나 국방부와 협의 등을 거론하며 지극히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군경의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씨 사면 19년만에 보안관찰 벗어나

강씨 "법무부 면제 결정 경의"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던 강용주(의사·57·사진)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소장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지 19년 만에 보안관찰 대상에서 벗어났다.

강씨는 1985년 전남대학교 의대 재학 중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간 옥살이를 했다. 정권의 회유에도 끝내 전향을 거부해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불린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강씨의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수용해 강씨에게 보안관찰처분 면제 처분을 최종 통보하도록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가 이같은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연된 정은의 의미가 아니라 말이 있지만 이렇게 정이가 실현돼 저로서 너무 의미가 깊다"며 "인권의 관점에서 오늘 결정을 내려 준 법무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씨는 "오늘 결정은 작지만 의미있는 진전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넓히는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구



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으로 1999년 2월 석방됐다.

다만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으로 삼는다는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다.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 처분 기간을 2년으로 하되,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 이전 사유가 생길 때도 미리 신고하게 돼 있다.

강씨는 이 같은 법 조항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다가 2002년과 2010년 각각 벌금 5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년 12월 다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 진상규명 과거로부터 배운다 기념재단 20일 집담회

5·18기념재단이 지난 1년간 진행했던 연구과제 성과를 발표하며 울해를 마무리한다.

5·18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재단 내 사랑방에서 '5·18 진상규명, 과거로부터 배운다'를 주제로 집담회를 연다.

이번 집담회는 재단 비상임 연구원들의 연구 과업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안길정 연구원은 '국방부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경험'을, 최용주 연구원은 '군사독재권력의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이행기 정의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사례'를 발표하며 5·18 진상규명에 대한 반성과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5·18재단 관계자는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지연으로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5월 단계는 5·18진상규명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조사위의 출범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맨홀사고 구조 훈련

광주북부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이 17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도로에서 맨홀사고 인명 구조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맨홀 등 밀폐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 상황에 적합한 인명구조 기법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북부소방서 제공)

'억대 조합비 횡령' 금호타이어 전 노조 간부 징유

해의자본 매각반대 투쟁을 하던 시기에 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금호타이어 전 노조 간부가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지후)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노조와 합

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조합비 1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조합비 계좌 관리 및 회계 업무를 하며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조합비 일부를 이체하는 식으로

횡령했다.

A씨는 노조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반대하고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며 사측은 물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투쟁하던 시기에 조합비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조합비 횡령 사건이 드러나면서 A씨는 금호노조로부터 제명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무인텔에 생후 6개월 딸 장시간 방치한 친모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17일 무인텔 객실에 생후 6개월된 딸을 방치한 혐의(영아유기)로 친모 A(31)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 한 무인텔 객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혼자 두고 15시간 이상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다음날 청소를 하러 들어간 모텔직원 발견했으며,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 거주지

인 경남지역에 있었으며, 경찰이 신원을 파악해 연락하자 지난 16일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왔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광주에 왔다가 불이행 생겨 경남에 다녀왔다.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딸은 보호시설에 맡기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다른 남자 만난다고...여자친구 흥기로 찢른 50대



○"다른 남자를 만나다"며 자신의 연인을 흥기로 찢른 50대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서형. ○17일 남원경찰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 16일 밤 10시께 남원시 한 건강원에서 연인관계인 B(여·53)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흥기로 수차례 찢르는 등 살해하려 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다른남자를 만나 화가나 잠지 못했다"고 진술. /남원=백선 기자 bs8787@

※ 본 투시도는 고가의 이미지를 용가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임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전문, 모아엘가 푸른, 대성베르빌 전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빛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